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제1회 토론회

‘호금도’인가 ‘후진타오’인가

(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일 시 : (제1회)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제1회 토론회 일정

일시	내용	비고
	개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0~15:05	‘5’ 인사말	국어학회 회장
15:05~15:10	‘5’ 축사	국립국어원장
15:10~15:30	‘호금도’ 주장 발표	김창진(초당대 교수)
15:30~15:50	‘후진타오’ 주장 발표	고석주(연세대 교수)
15:50~16:00	‘호금도’ 주장에 대한 토론	류동춘(서강대 교수)
16:00~16:05	‘5’ 답변	
16:05~16:15	‘후진타오’ 주장에 대한 토론	박정구(성균관대 교수)
16:15~16:20	‘5’ 답변	
16:20~16:50	‘30’ 패널 자유 토론	
16:50~17:00	‘10’ 객석 질의응답	
17:00~17:05	‘5’ 폐회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차후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사회자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발표자

김창진 교수

현 草堂大 교양학부 교수

慶熙大 대학원 문학박사

1994년 草堂大 교양학과 전임강사

진)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부회장, 국어국문학회 이사

현) 국제어문학회, 우리문화회, 세계한국어문학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사

현) 한국어 바르고 아름답게 말하기 운동본부 사무국장

<토론회> 2007년 전국 한자교육 추진 총연합회 주최 '외래어 표기법' 토론회: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고쳐야 한다」 외 다수

<논문> 「한글專用 體制에서 漢字語 表記의 問題」(『漢字漢文教育』 제23집, 2009) 외 다수

<신문 발표> 「[시론] 천안문과 텐안면, 짜장면과 자장면」(『朝鮮日報』, 2007.11.08.) 외 다수

<저서> 교주본 『탑 명심보감』, 『박타령』, 『배비장전』, 『변강쇠전』, 『두견지』, 『홍부전』 외 다수

고석주 교수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문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박사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구 교수

<프로젝트> 2004-2008년 한국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논문> “조사 '가'의 의미” 외 20여 편

<역서> 『격』 외 5권

<저서>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1』 외 3권

■ 토론자

류동춘 교수

현 서강대학교 문학부 중국문화전공 교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

國立臺灣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

清華大學 人文社會學院 中文學 歷史學 고급방문학자

현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부회장

<주요 연구 실적>

『중국어학개론』(공저)(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8), 『從語言和文字觀察到的韓國與中國的異同點(當代韓國, 2009), 『韓國略字與簡化字的對比研究試探(중한언어문화연구, 2008), 『한자체계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중국어학보, 2007), 『중국어문자학용어 한역방안 연구(중국문학, 2005), 『설문해자에 보이는 한대 지배이데올로기(중국어언어연구, 2004) 외 다수

박정구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2008.9.-2009.8. Harvard 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2005.12.-2006.1. Taiwan Normal University Visiting Scholar (대만사범대학 방문학자)

<저서 및 역서>

『중국어문법』, 『실용현대한어어법』, 『중국어화용론』, 『중국어형태론』, 『중국어학개론』, 『중국어유어의사건』 외 다수

<논문 및 보고서>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구별사의 분석을 통한 중국어 품사의 전형성에 대한 기능적, 동태적 고찰”, “중국어문법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중국어 어순 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학부제하의 학력증진을 위한 어문학분야 교육과정 연구” 외 다수

목 차

- 일 정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 김 창 진_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1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은 韓國語 傳統으로 돌아가야 한다
- 발표 2 : 고 석 주_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1
현행 외래어표기법이 맞다 - 한글의 빛과 그림자 -
- 지정토론 1 : 류 동 춘_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21
‘호금도’는 우리말인가?
- 지정토론 2 : 박 정 구_성균관대 중문학과 교수 25
누구를 위한 원음 표기인가?
- 부 록 : 조선일보 6월 20일자 기사 31

발 표 1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은
韓國語 傳統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창 진

초당대 교양학부 교수

【발표 1】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은 韓國語 傳統으로 돌아가야 한다

金 昌 辰
(草堂大 교양학부)

1. '외래어표기법'은 '자국어[韓國語]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韓國의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外來語'와 '外國語'의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다. '외국어'는 '남의 말'로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쓴다. 그러니 '외국 현지 원음'을 따르는 게 좋다. 하지만 外來語는 외국어가 한국어에 귀화한 낱말로서 韓國語의 일부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대화할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외래어는 '외국 현지 원음'이 필요 없다.

韓國人 중에는 '외래어'를 '외국어'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외래어'를 외국인을 앞에 대하고 말하는 언어로 착각한다. 하지만 외래어를 쓰며 앞에서 대화하는 상대는 한국인이다. 그러니 외국 고유명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문제는 한국인 간의 의사소통 문제다. 따라서 '外來語' 사용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우리 韓國人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인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漢字文化圈의 漢字로 적힌 한자어를 어느 나라말로 읽어야 할까? 당연히 외국어가 아닌 韓國語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2천년간 韓民族은 한자문화권의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한국어로 읽어 왔다.

그런데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한자문화권의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외국어로 읽으라고 강요한다. 이는 현행법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混同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대화하는 '외국어'로 錯覺하여 '외국어 현지원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만들어진 이 법은 '외국어표기법'이지 '외래어표기법'이 아니다.

현행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그 원칙부터 잘못된 것이다. '외국의 현지원음주의'는 외국어 표기법이나 맞다.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은 '자국어[韓國語] 중심주의'여야 옳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화 상대	사용 언어	표기 원칙	'胡錦濤' 발음
외국어	외국인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현지 원음주의	후진타오
외래어	한국인	한국어	자국어 중심주의	호금도

2. 현행법은 '言語主權'을 포기하여 한국인에게 不便과 苦痛을 주고 있다

주권국가는 '내 말은 나 위주로' 할 수 있는 '언어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고 유명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大韓民國 정부와 국민이 알아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胡錦濤'를 읽는 언어 주체는 한국인이다. '胡錦濤'는 객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언어주권을 살려서 주체적으로 한국어로 '호금도'라 읽어야 맞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행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은 언어 주체인 한국인에게 편리한 한국어를 버리고, 객체인 외국인의 '외국어 현지원음'을 찾아서 말해주라고 강요한다. 이러한 현행법은 '언어주권'을 포기한, 奴隸根性에 젖은 태도다. 自己卑下 外勢 事大主義의 극치다.

主客이 顛倒된 얼빠진 짓은 제발 그만 두어야 한다. 언어의 중심은 말하는 한국인이지만 말 속에 등장하는 중국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는 상대도 한국인이다. 그 한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한국어를 써주어야 마땅하다. 왜 韓國人끼리 韓國 땅 안에서 의사소통하면서 편리한 韓國語를 버리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中國語로 '사서 고생' 해야 하는가?

유럽의 로마자문화권 언어는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민족에 따라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다. 같은 현상으로서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도 각 민족은 漢字는 공통으로 쓰되 발음은 각 민족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그래서 지난 2천년간 韓中日 세 민족은 '언어주권'을 살려 자기 자기 나라말로 한자를 발음해왔다. 예를 들어, '毛澤東'을 한국인은 '모택동', 중국인은 '마오쩌둥', 일본인은 '모오타쿠도오'라고 각기 자국어로 읽어왔다.

오늘날에도 中國과 日本은 자국어 전통을 그대로 지켜서 모든 한자어를 자기 나라말로 읽으며 편하게 살고 있다. 이에 반해 오직 우리 韓國만 2천년간의 한국어 전통을 파괴하여 한국어를 버리고 외국어를 들여와 不便하게 산다. 아니 왜 우리만 자신의 '언어주권'을 스스로 否定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왜 '사서 고생'하는가?

中國과 日本뿐만 아니라 세계는 외래어 사용에서 모두 '自己中心的'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구상에서 오로지 우리 韓國만 '外勢 中心的'으로 卑屈하고 不便하게 살아야 하는가? 韓國은

自發的인 '世界 言語 共同 植民地'인가?

우리는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과 다른 문화권의 외래어표기법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한자문화권 외래어는 우리 韓民族이 이미 2천년간 써온 오랜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방식이므로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歷史性和 傳統性を 함부로 파괴하면 混亂이 일어난다. 현행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은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문화권 외래어는 韓民族이 새로 접하는 것으로서 아직 확립된 전통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현지 원음'을 바탕 자료로 삼되 한국어의 음운에 맞게 한국어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意譯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3. 현행법은 '글자'와 '발음'에서 '意味 傳達'을 二重으로 妨害하고 있다

言語의 目的은 '意味 傳達'이다. 말하는 '발음'이나 글을 적는 '글자'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자문화권의 漢字語는 漢字라는 '文字'로 적어야 意味가 정확히 전달된다. 그리고 그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韓國語 '發音'으로 읽어야 의미가 전달된다. 때문에 지난 2천년간 韓民族은 한자문화권의 한자어를 漢字라는 '글자'로 적고 韓國語라는 '발음'으로 읽어 왔다. 그것은 中國이나 日本의 한자어나 또는 고유명사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한자문화권의 한자어 외래어는 한국어와 똑같이 취급된 最上の 외래어였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이런 최상의 외래어 형태를 일부러 파괴하고 있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日本과 中國의 한자어를 韓國語 '發音'을 버리고 外國語 發音으로 읽게 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목적인 '意味 전달'을 방해한다. 중국어 [후진타오]라는 발음에서 한국인은 그 이름의 '意味'를 알 수 없다. [후진타오]라는 발음은 한국인에게는 騷音이다. 한국어 [호금도]로 읽어야 한국인에게는 한자어의 의미가 전달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현행법은 한자어를 漢字라는 '글자'를 버리고 한글로 적게 하고 있다. 이 또한 '意味 전달'을 방해한다. 訓民正音を 만든 世宗大王조차도 漢字語는 반드시 漢字로 적었지 훈민정음으로 적지 않았다. 그래야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胡錦濤'를 '한글'로 '호금도'라 적으면 안 된다. '한글'로 적은 '호금도'는 '意味 없는' 暗號다. 漢字로 '胡錦濤'라 적어야 이름의 의미가 전달된다. 또 漢字로 '胡錦濤'라 적어야 韓中日 3국에서 통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 고유명사는 한자로 '胡錦濤'라 적고 한국어 발음으로 '호금도'라 읽어야 '意味 전달'이 된다. 그래야 언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천년간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오늘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를 파괴하는가?

'胡錦濤'에 한글 독음을 달아주고 싶으면 '胡錦濤(호금도)'라 併記하면 된다. 하지만 '호금도(胡錦濤)'는 안 된다. 원 이름이 한자로 된 '胡錦濤'다. '胡錦濤'는 의미와 발음을 함께 나타내는 글자다. 하지만 '호금도'는 발음만 나타내는 발음기호다. 글자를 앞에 적고 발음기호를 뒤에 괄호 안에 적어야 순서가 맞다. '胡錦濤(호금도)'가 바로 世宗大王이 하였던 國漢字 並用 순서다.

요컨대 현행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은 언어의 목적인 '意味 전달'을 일부러 二重으로 방해하고 있다. 2천년간 검증된 最上の 외래어 방식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언어의 목적인 '意味 전달'을 일부러 방해하는 最惡의 방향으로만 改惡해 놓은 것이 현행 외래어표기법이다.

4. 韓國人的 자연스러운 母國語 사용을 막고 外國語를 강요함은 逆理다

이름은 外延과 內包를 지니고 있다. 外延은 그 이름이 겉으로 지시하는 '對象'이고, 內包는 이름이 그 안에 담고 있는 '意味'다. 이름과 '內包的 意味'는 뗄 수 없으므로 必然的인 관계다. 하지만 이름과 '對象의 지시'는 可變的이고 분리할 수 있는 관계다. 비유하면 '이름'과 '의미'는 동전의 앞뒤 면처럼 한 몸이다. 반면에 '이름'과 '대상'의 관계는 동전과 동전 주인의 관계처럼 任意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읽을 때 常數인 '意味'에 유념해야 하고 變數인 '指示 對象'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엉뚱하게도 常數는 내팽개치고 變數인 '지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 대상의 국적을 찾아서 그 국적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름의 지시 대상은 可變的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王貞文'이라는 이름이 있다 치자. 이 이름을 韓國人도, 中國人도, 日本人도 쓸 수 있다. 그런데 國籍에 따라 달리 읽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앞에 적혀 있는 이름을 읽을 수조차 없지 않는가?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통달한 超能力者만 한국인 자격이 있는가? 게다가 중국인은 辛亥革命 이전에는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에는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름 주인의 국적과 생존연대까지 알아야만 이름을 읽을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코미디가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한국인에게 '王貞文'을 읽으라고 하면 한국인 절대다수는 한국어 '왕정문'으로 읽는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韓國人은 이름의 지시 대상에 신경 쓰지 않고 한자어 이름은 무조건 韓國語로 지난 2천년간 읽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母國語 사용을 禁止하고 外國語를 쓰라고

強要한다. 한국인이 母國語인 한국어를 쓰는 것은 順理로서 '우리말 사랑'이고 애국적인 행위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일부터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어를 강요하는 것은 逆理이자 民族叛逆的 행위이다. 지구상에 자기 국민이 愛國者가 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일부터 賣國奴를 만들려고 힘쓰는 황당한 정부가 한국 정부 말고 또 있을까?

5. 한글專用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괴롭히는 惡法은 撤廢해야 한다

韓民族은 지난 2천년간 日本 고유명사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왔다. 심지어는 日帝強占期 하에서도 日帝가 학교에서 '國語'라 해서 일본어를 가르쳤지만 '朝鮮語'라 해서 한국어도 함께 가르쳤다. '朝鮮語'에서는 일본 고유명사를 한국어 발음으로 말했다. 日帝가 만든 라디오 방송국인 京城放送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제1방송의 '日本語 放送'에서는 일본 고유명사를 일본어 발음으로 방송했다. 하지만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제2방송의 '朝鮮語 放送'에서는 일본 고유명사를 한국어 발음으로 방송했다.

1937년 日帝가 中日戰爭을 일으키면서 朝鮮總督府는 戰時體制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경성 제2방송인 조선어 방송에도 1939년부터 일본 고유명사를 '日本 現地 原音'으로 방송하게 강요했다. 학교에서도 1938년에는 '朝鮮語' 시간을 任意教科로 돌렸다가, 1942년에 '朝鮮語' 시간을 아예 폐지하고 '國語' 곧 일본어 시간만 남겨서 일본어만 쓰기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일본 고유명사도 '日本 現地 原音'으로 말하게 교육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1945년에 광복이 됐다.

그런데 1948년에 大韓民國이 만든 '들음말 적는 법'의 日本語 외래어표기법은 日本 고유명사를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걸쳐서 모두 '日本 現地 原音'으로 읽게 하고 있다. 그래야 한다면 韓國이 有史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日本의 屬國이라는 말인가? 韓國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황당무계한 歷史歪曲을 할 수 있는가? 현재 韓國 정부는 전시체제의 조선총독부고 한국 국민은 그 치하의 식민지 백성인가? 日帝 식민지 殘滓가 광복 66주년인 2011년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남아서 한국 사회에 害惡을 끼치고 있음에 기가 막힌다.

한편 韓民族은 지난 2천년간 中國 고유명사도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왔다. 中國에 事大하던 朝鮮時代에도 그랬고, 大韓民國이 건국된 이후에도 1985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왜 1986년 이후로는 大韓民國 국민이 중국 고유명사를 중국어로 읽어야만 하는가? 1986년 이후 韓國은 中國의 屬國이 되었는가?

현행법이 이렇게 異常하게 된 것은 1986년에 '中國語 외래어표기법'이 '日本語 외래어표기법'과 '형평성' 또는 '일관성' 때문에 改惡이 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日本語 외래어표기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훗날 '中國語 외래어표기법'에까지 惡影響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1948년에 '日本語 외래어표기법'은 그렇게 황당하게 만들어졌는가?

“요컨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원지음주의는 1948년 미군정청 시기에 최현배 편수국장 주도하에 처음부터 채택된 것이다. 당시 1945년 12월 한자 폐지를 결의하고, 1948년 10월 한글 전용을 선포한 배경 속에서 분석해 보면, 그 원지음주의 채택의 근본적 이유는 한글 전용을 쟁취한 묘안이었다고 하겠다. 가령, '북경'이라고 부르던 '北京'으로 쓰게 되나, '베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北京'으로 쓰지 않는다는 단순 논리에 만족했으니까 뒤따르는 여타의 문제를 널리 고려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金敏洙(2004), 「한자 표기 원음주의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4호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61면).

그러니까 '日本語 외래어표기법'의 본질은, 한글專用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말을 버리고 日本語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中國語 외래어표기법'은 이것을 답습하여 다시 우리말을 버리고 中國語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後遺症이 심각하다.

한자문화권 고유명사를 과거 우리말 전통대로 한국어 발음으로 읽게 하면, 한국인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읽을 수 있다. 읽는 방식이 民主的이고 普遍的이어서 便利하다. 반면에 현행 법대로 외국어 발음으로 읽게 하면, 일본어와 중국어에 두루 능통한 극소수 전문가만 읽을 수 있다. 非民主的이고 特權的인 방식이므로 일반 국민은 不便하고 苦痛스럽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글專用을 위해 한국인이 한국어를 못 쓰고 외국어를 쓰는 不便과 苦痛을 계속 겪어야만 하는가?

6. 韓國語 傳統으로 돌아가서 便利하고 合理的으로 외래어를 쓰자

한국의 현행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은 언어학적·국어학적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법이다.

첫째, '외국 현지원음주의'를 채택한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외국어표기법이다. 외래어표기법은 '自國語 中心主義'가 원칙이어야 맞다. 둘째, '내 말은 나 위주'로 하는 '言語主權'을 포기하였다. 언어 주체인 한국인에게 편리한 한국어를 버리고 객체 위주로 외국어를 쓰게 하는 것은 '外勢 事大主義'다. 셋째, 현행법은 韓國語 發音으로 읽어야 할 한자어를 외국어 발음으로 읽게 하고, 漢字로 적어야 할 한자어를 한글로 적게 하고 있다. 언어의 목적인 '意味 傳達'을 2중으로 방해하는 最惡의 改惡이다. 넷째, 이름과 의미는 필연적인 常數고 이름과 대상은 임의적인 變數다. 그런데 오히려 變數에 초점을 맞춰, 韓國人의 자연스러운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어를 강요함은 民族叛逆的 逆理이다. 다섯째, 1948년에 만들어진 日本語 외래어표기법은 한글專用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말을 버리고 日本語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1986년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中國語 외래어표기법까지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改惡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국민에게 큰 不便과 苦痛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불합리한 법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일은 제발 그만 두어야 한다. 漢字語 고유명사는 무조건 漢字로 적고 韓國語 발음으로 읽어 왔던 한국어의 2천년간 傳統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인이 한자문화권 외래어를 便利하고 合理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 표 2

현행 외래어표기법이 맞다
- 한글의 빛과 그림자 -

고 석 주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발표 2 |

현행 외래어표기법이 맞다 - 한글의 빛과 그림자 -

고 석 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문과)

1986년에 새 외래어표기법이 고시된 이후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한자어'에 관해서는 해당 언어의 원음으로 적을 것이냐 한국식 한자음으로 적을 것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실제로 중국어의 인명과 지명의 경우에 '胡錦濤'가 [후진타오]와 [호금도], '鄧小平'이 [덩샤오핑]과 [등소평], '遼寧省'이 [요녕성]과 [랴오닝성], '靑島'가 [청도]와 [칭다오] 등의 방식으로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것이 나을까? 이야기 한 토막으로 풀어가 보자.

어느 집안에서 어떤 일에 마땅한 가족이 없어 다른 집안의 일꾼을 들었다. 일꾼을 쓰면서 일꾼 집안에서 연장을 많이 가져왔다. 비싼 값을 치루고 집안 물건이 되었다. 일꾼 집안 방식으로 일꾼을 부리기도 했다. 마침내 마땅한 가족이 태어났다. 그가 못 하는 집안일은 없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를 무시하고 일꾼을 계속 쓰자고 한다. 일꾼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으니 그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자는 사람들에게 근본을 모른다고 말한다. 집안을 팔아먹는 일이라고 한다. 저 후손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느 집안 얘기냐고?

한국어를 적기에 마땅한 글자가 없어 중국어의 '한자'를 빌려 왔다. 한자를 쓰면서 한자로 적은 중국어가 많이 들어 왔다. 고유의 한국어를 많이 죽이고 중국어가 한국어가 되었다. '되'가 '산(山)'이 되고 '가람'이 '강(江)'이 되었다. 한자로 한국어를 적기도 했지만 중국어 문장인 '한문'을 쓰기도 했다. 마침내 '한글'이 창제되었다. '한글'로 적지 못하는 한국어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한글을 쓰지 말고 '한자'를 계속 쓰자고 한다. 한자는 사용하기 어려우니 한국어는 한글로만 쓰자는 사람들에게 근본을 모른다고 말한다. 저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새로 '靑島'라는 연장을 중국어에서 들여와야 한다. 딱 보니 예전 일꾼인 '한자'로 적혀있다. 예전에 한자로 적힌 중국어를 읽던 방식으로 '청도'라고 읽자고 한다. 아무도 그렇게 말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이 한국식 한자음이라는 우리의 전통이란단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현대 중국어 '칭다오'에 맞게 말한다고 하니 근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청도'는 한국어이고 '칭다오'는 중국어란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한국식 한자음은 명문화된 외래어표기법은 없었을지라도 고대 중국어의 발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이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胡錦濤'를 [후진타오]로, '靑島'를 [칭다오]로 쓰는 것은 현대 중국어를 적은 것이고, [호금도]와 [청도]라고 쓰는 것은 고대 중국어에 가까운 발음을 적은 것인 셈이다.

'한글' 창제되기 전에는 말(한국어)을 적을 글자가 우리에게 없었기에 중국어의 글자인 한자를 그대로 사용했다. 오랜 동안 한국어를 중국어 글자인 한자로 적게 되면서, 한국어 '가람'과 '되'가 중국어 '강(江)과 '산(山)'으로 대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중국어가 한국어의 외래어로 수용되었다. 우리가 만든 한자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에서 적게는 40% 많게는 70% 정도가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인 한자어라고 한다. 그래서 한자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중요하며, 한자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한자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다.

'한글'이 없을 때는 중국 글자인 '한자'로 한국어를 적었기에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를 쓸 수 있었다. 또한 말은 한국어로 해도 글은 중국어인 '한문'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는, 한자 사용 관습과 아직 한국어가 되지 못한 중국어인 '한자어' 때문에 한자어를 한글로만 적는 것이 어색했는지 몰라도, 한글만으로 온전하게 자신의 생각이 담긴 한국어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로 적힌 중국어가 한국어의 외래어가 되었다. '강'을 '江'으로 적지 않아도, '산'을 '山'으로 적지 않아도 '강'과 '산'이 한국어에서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안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한자계 외래어의 어원을 이해하거나, 과거 중국어 문장인 '한문'으로 기록된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현재 언어생활에서는 표기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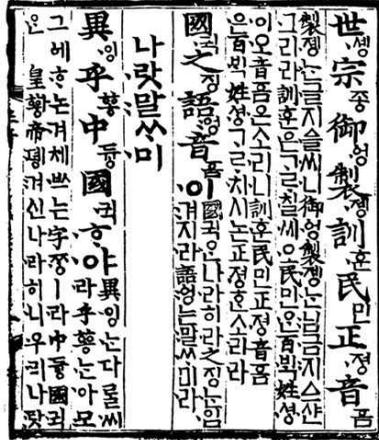
우리가 한자를 사용한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쓰였다. 첫째로, 한자는 한문에 사용되었다. 《훈민정음 예의》의 한 구절이다.

(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둘째로, 한자는 한국어를 적기 위한 글자로 사용되었다. 한국어를 뜻이 비슷한 한자로 적는 '훈차',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적는 '음차' 등의 방식으로 중국어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표기했다.

- (2) 無去乙(업거늘): '無'는 [업-(없다)]의 뜻에 해당하는 훈차 표기, '去乙'은 [-거늘]의 소리에 해당하는 음차 표기

이러한 한자 빌려 적기는 그 사용 범위에 따라, 한국어를 그대로 한자로 적은 '향찰', 한문을 읽을 때 사용되는 한국어 토에만 쓴 '구결', 한문식 표현을 같이 쓰면서 한국어를 훈차나 음차의 방식으로 적은 '이두',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특히, '이두'는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방식이니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관습은 아주 오래되었다. 비슷한 방식의 한자 사용이 일본어에서도 나타난다. 한자로 적힌 일본어를 제대로 읽기는 아주 어려운데, 특히 일본인의 인명은 본인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셋째로, 한자는 한국어 중에서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를 적는 데에 사용되었다. 《훈민정음 언해》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의 한자 사용을 볼 수 있다.

- (3) 나랏말싸미 中(中國)國(國)에 달아 文(文)문(문)字(字)종(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찌 이런 전츠로 어린 百(百)姓(姓)성(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믇츨내 제 쓰들 시러 퍼디 몯흠 노미 하니라

그리고 이러한 한자 혼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현대에서 한자를 혼용하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한글 표기(정확히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먼저 하고, 글자체를 작게 하여 한자를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월인석보에서는 한자를 먼저 표기하고 그 음은 글자체를 작게 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바, 세 가지 방식의 한자 사용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자'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국어'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한국어로 파악되는 것은 한국어에 그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 (3)의 경우뿐이다.

그런데, 《훈민정음 언해》에 대한 설명들에서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다.

- (4) 세종어제훈민정음. 「명사」 『책명』 《훈민정음》의 본문을 한글로 풀이한 책. 세종이 지은 서문과 예의(例義) 부분을 한글로 풀이한 것으로, 《월인석보》의 첫머리에 실렸다. 「참고 어휘」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표준국어대사전》

- (5)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언해(訓民正音諺解)는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例義)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 (6) 언해(諺解)[언 : -] 「명사」 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씀. 또는 그런 책. 《표준》

- (7) 언해(諺解). 중국어(中國語) 곧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네이버 백과사전>

위에서 '한글'은 '한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쓰였는데, 우리 고유의 '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어'라는 의미로 쓰였다.1) 즉, '글자'가 '말'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상 언어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다.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자', '한글 사랑, 나라 사랑' 등.

- (8) 글-자 (-字) [-짜] 「명사」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ㄴ글「3」·글씨「2」·자「4(字)」「1」. <관용구/속담> 글자 그대로 과장이나 거짓 없이. 『미순이와 꼬박 같이 지낸 이 일주일 동안은 글자 그대로 오직 '노닥거린' 것뿐이었다.

- (9) 문자02 (文字) [-짜] 「명사」 「1」『언어』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한자 따위의 표의 문자와 로마자, 한글 따위의 표음 문자로 대별된다. <관용구/속담> 문자 그대로 조금도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 팀은 문자 그대로 연전연승을 하였다.

- (10) 말01 [말 :] 「명사」 「1」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킨다. ㄴ어사「11(語辭)」「1」. <관용구/속담> 말 그대로

1) <훈민정음>의 체제는 이 가운데 예의 부분만이 15세기에 우리말로 번역(諺解 언해)되어 나왔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훈민정음">

말하려는 사실과 다름없이, 『그는 말 그대로 성실한 사람이었다./특별한 기술도 없는 데다가 나이마져 삼십이 넘어서고 보니 취직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표준》

그러나, '한글'이 곧 '한국어'이지는²⁾, '글자'가 곧 '말'이지는 않다. 글자는 말을 적는 시각 기호이다. 즉, 말을 글자로 적었을 때, 그 글자가 말을 나타내는 것이지, 글자로 적혀 있다 해서 모두 말인 것은 아니다. 한글로 '무거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어는 아니다. 로마자로 'mugeoul'이라고 적혀 있으면 영어나 독일어 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한자로 적힌 '無去乙'은 어느 나라 말일까?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니다. '無去乙'은 한국어 '없거늘'을 한자로 적은 한국어의 '이두'식 표기이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으므로 한국어도 아니다. 글자가 말인 것은 말을 적는 표기법에 따라 적힌 것일 때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글자'가 '말'이라는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외래어표기법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왜 우리는 (4)-(10)과 같이 '글자(혹은 문자)'가 '말(혹은 언어)'과 동일한 것으로, '한글'이 '한국어'와 동의어인 것으로 잘못 사용할까? 그것은 "한글의 빛과 그림자"라 하겠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글'은 '자질 문자와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글자'와 '음성'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면서, 표기법을 통해 '표의주의'와 조화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한글의 이러한 '빛'은 한글 사용자에게 '한글'로 적힌 것이 곧 '한국어'라고, 나아가 '글자'가 곧 '말(언어)'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그림자'를 갖는 것 같다. 반면에, 영어에서 단어의 '글자(로마자)'와 '발음', 중국어에서 '글자(한자)'와 '발음', 일본어에서 '글자(한자)'와 '발음'은 일대일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글자'와 '발음'을 별개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靑島'가 말인 것은 한글로 '칭다오'라고 적을 수 있는 중국어가 있기 때문이다. '胡錦濤'는 '후진타오' 비슷하게 발음하는 중국인의 이름이 있기에 말이다. 그럼, 그것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적은 '청도'와 '호금도'가 말이 될까? 아니다. 중국어에도 한국어에도 없는 말이다. 그것은 중국어에서 가져온 외래어가 아니라, 중국어 글자의 한국식 발음에 따라 없는 말을 새로 만드는 셈이다. 타인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권리는 없다.

하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靑島'와 '胡錦濤'를 '청도'와 '호금도'라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것도 한자를 알아야 할 일이다. 한자를 알아 한국식 한자음으로 '호금도'라고 작명하는 것이 중국어를 알아 중국어에 가까운 '후진타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인이 외국어에서 온 말을 한국어로 말하고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어에 대응하는 새 한국어를 만드는 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2) 한글01 「명사」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 세종 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으로,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재는 24 자모만 쓴다. 「참고 어휘, 반절02(反切);언문02(諺文). 《표준》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문가들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글자로 적고 읽으면 된다.

그럼, 중국인 '공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콩쯔'라고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역시 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공자'를 그대로 쓰면 된다. 중국인 '孔子'를 나타내는 한국어 '공자'가 이미 있다. 굳이 '콩쯔'라는 새 말을 외래어로 수용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외래어표기법에서의 중국 인명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구분은 그 말이 외래어로서 이미 한국어가 되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 '공자'와 중국어 '콩쯔'의 다름에서 오는 수교로움은, 즉 동일 대상을 가키리는 고대 중국어에서 온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와의 차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한국인의 이름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자국어 방식으로 읽는데, 왜 우리는 원음대로 써야 하느냐는 항변도 있다. 그것은 그 언어의 표기 체계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생겨난 해당 언어의 문제이다. 말을 글자로 적는 것은 모든 문자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구 상의 어떤 문자보다도 우수한 한글 때문에 우리는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잘 표기할 수 있다. 중국어나 일본어식의 한자 발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오명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름을 '한글'로 적으면 된다. '서울'처럼 옛 지명의 한자 표기 '漢城'이 아니라 현재 지명 '서울'에 가까운 중국어 '首爾'로 표기하고 말하도록 알리면 된다.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고 로마자를 사용하는 영문으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로마자가 한국어의 글자이고 영문이 한국어 문장인가? 아니다. 그럼, 로마자로 적힌 말을 로마자에서 온 과거의 외래어 발음대로 읽는다고 한국어가 되는가? 아니다. '한자'와 '한문'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한국어인가? 역시 아니다. 한자가 한국인이 사용한 문자였고 한문이 한국인이 사용한 언어였기에 한자와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의 것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글자와 한국어이지는 않다. 한자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다고 그것이 곧 한국어이거나 한국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이니, 외국어의 글자를 우리 식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외래어표기법이 원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말맛이 살아나도록 수정하면 된다. 외래어를 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지켜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김민수(2004), 한자 표기 원지음주의의 문제, 『새국어생활』 14-2.
- 김선철(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 16-2.
- 김영만(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어문논총』 25.
- 김창진(2007),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고쳐야 한다, 『한글+漢字문화』 100.
- 김창진(2008),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고쳐야 한다, 중국인문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창진(2009), 한국어 전통을 파괴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9 세계한국어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 김태성(2001),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하여, 『한국중어중문학회』 27.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 민현식(1999),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 정서법 연구』(태학사).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 배은한(2008),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제고 『중국어문학연구회 제79회 정기학술발표회논문집』.
- 송기중(2007), 한자 인명·지명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해야, 『한글+漢字문화』 100.
- 양세욱(2009), '다오위타이'와 '뉘시터국빈관' 사이-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57.
- 엄익상(2008-),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반성-원칙과 세칙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
- 엄익상(2009-),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56.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
- 장호득(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11.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 조관희(2009), 중국어 한글표기법 논의를 바라보는 한 시각-왜 '원음주의인가, 『중국어문학논집』 58.
- 조남호(2007), 동양 인·지명 한글 표기의 현황과 향후 전망, 『한글+漢字문화』 100.
- 진태하(2007), 한자 원음주의 표기를 반대함, 『한글+漢字문화』 100.

지정토론 1

‘호금도’는 우리말인가

류 동 춘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호금도’ 표기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호금도’는 우리말인가

류 동 춘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胡錦濤를 ‘호금도’로 써야 할 것인가, ‘후진타오’로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갑자기 왜 남의 나라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까? 나라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의 글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가장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름을 똑같이 한자로 표기해왔기 때문에 중국인의 이름표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글의 표기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름이란 무엇인가와 외래어의 정의 문제이다.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 짓기 위해 사물이나 단체에 붙이는 일컬음’이다. 즉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기 위하여 나를 일러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도 고려하지만, 원래는 소리로서 남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하는데, 소리로서 구분이 되지 않거나, 원래 지은 이름과 전혀 다르게 들린다면, 그 이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란 것이 아무리 ‘나 위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남과의 소통이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던가? 특히 이름은 불리어지는 이름의 주인이 알아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관계없다면 펜스레 까다롭게 어려운 표기법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가 ‘레인’으로, 청룡이 ‘재키 찬’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은 듣는 사람을 위하여 상대방 언어를 배려하여 스스로 이름을 하나 더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표기 원칙이 없이 편의에 따라, 비는 의미를 따서 새 이름을 지었고, 청룡은 발음하기 편한 영어 이름을 찾은 것이다. 같은 라틴어에 기원을 두었지만 서구의 여러 언어에서 발음이 다르게 읽히는 고유명사들처럼 胡錦濤를 각각 ‘후진타오’, ‘호금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래야 우리의 언어주권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 胡錦濤를 ‘호금도’로 쓰면 한국어이고 ‘후진타오’로 쓰면 중국어가 된다고 하는데, 지칭 대상의 국

적이 바뀌지 않는 한 ‘호금도’라고 쓴다고 이것이 한국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발음으로 쓴다고 우리의 언어주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남의 표기법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우리 나름의 원칙을 정해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언어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은 외국인의 이름이 외래어이냐는 문제이다. 외래어의 사전적 정의는 ‘외국어로 기원을 둔 말 중에서 우리말이 된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인명은 지명과 더불어 모두 외래어가 될 수 없다. 한자어가 우리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한자로 기록된 인명이나 지명을 모두 외래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중국인의 이름인 ‘胡錦濤’는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발음을 따라 후진타오로 불러주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한자를 쓰는 지명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의 발음으로 써야 두 지역이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2천년을 한자를 사용해 왔다고 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한자가 익숙한 것도 아니다. 과연 요즘에 한자를 보고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국어 발음을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편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외국어는 외국어답게 표기해 주어야 우리 것과 구분도 되며, 타 언어와의 소통도 쉬워진다. 앞으로 눈앞의 편리에만 급급하지 않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일관된 외국어 표기법이 갖추어지길 기대한다.

지정토론 2

누구를 위한 원음 표기인가?

박 정 구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 '후진타오' 표기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

누구를 위한 원음 표기인가?

박 정 구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외래어를 한국식 한자음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원음으로 적을 것인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이지만 그 양극단의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행 외래어 표기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 어떤 언어에서 온 외래어인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원칙상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가 대량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말 조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에서 온 외래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 한자어의 사용을 어느 집안 일꾼 이야기로 설명한 것은 흥미 있는 비유이지만 한자음으로 읽는 외래어가 마치 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한자음이 왜 한국어가 아닌가?

한자음이 과거 중국어의 독음을 모방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독음은 이제 더 이상 중국어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중국현지의 어느 발음과도 같지 않은 우리 고유어의 한자음이다. 외래어 표기에서 한자음을 사용하는 것이 왜 한국어가 아닌 것인가?

2.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말의 전통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조상은 순우리말 외에 한자어를 발전시켜 우리말을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순우리말은 표음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는 하나

의 음절이 이면의 한자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말 어휘가 더욱 간결하고도 명확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 해준다. 조상들이 잘 가꿔 놓은 한자음 표기 방식은 그 나름의 계통성을 완성하였기에 이를 잘 키워갈 필요성이 있다.

3. 원음표기가 외국어의 원음을 잘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어로 표기된 영어 외래어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정확한 발음을 흉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어 표기에서 'brake'라는 1음절 단어를 '브레이크'라는 4음절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가까운 것인가? 중국어의 자모음의 음가를 가진 우리말의 자모음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다른 음운 체계를 갖고 있는데 한국어로 이들 언어의 발음을 똑같이 적을 수 있는가?

4. 원음 표기와 한자음 표기를 이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한자음으로 표기된 이미 익숙해진 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현대의 어휘는 원음으로 적는다는 이원적 체계는 외래어 표기에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외래어 중 어떤 것에 한자음 표기를 적용하고 어떤 것에 원음 표기를 적용하는 단어의 범주나 시기를 구분하는 근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5. 외래어 표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외래어의 표기는 그 외래어 사용자를 위한 것인지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 중의 외래어는 한국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지 중국인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예측하기 힘든 발음, 중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도 한국어 대응어를 외워야 하는 발음을 설정하여 우리말에서 상용되는 발음의 음절 표기가 아닌 것을 억지로 발음하게 하는 것은 한국인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예로부터 언어 문화적 접촉을 해왔다. 비록 언어의 계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인접한 두 언어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접촉은 어휘, 문법, 음성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자와 한자어의 사용도 그러한 과정 중에서 발전시켜온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며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는 유산이다. 중국어 원음대로의 외래어 표기가 한국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확실한 한자음이 있는데 원어와 듣기 유사한 소리를 억지로 내려고 고심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와 언어 문화적 공유를 하지 못한 서구의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 노력하는 것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지만, 중국어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표기할 수 있는 귀중한 전통적 방식을 왜 버리려 하는가? '복경'이라고 읽는 것이 왜 우리말 표현이 아니고, 중국어답지도 않은 '베이징'이 왜 꼭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라야 하는가?

부 록

조선일보 6월 20일자 기사

